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 회피목표, 인지적 의지통제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성취압력의 조절효과*

추상엽** · 임성문***

초 록

본 연구는 실패공포가 고등학생의 학업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회피목표가 1차 매개변인이고 인지적 의지통제가 2차 매개변인인 경로모형(실패공포→회피목표→인지적 의지통제→학업적 지연행동)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 모형의 회피목표가 인지적 의지통제에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모의 성취압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충북, 충남에 소재한 6개 고교에서 설문조사한 후 683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매개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모형은 관찰된 자료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패공포가 학업적 지연행동에 곧바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라기보다, 실패공포가 높을수록 회피목표가 증가하게 되고, 증가된 회피목표는 인지적 의지통제를 감소하게 하고, 감소된 인지적 의지통제는 학업적 지연행동을 증가시키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모형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회피목표가 인지적 의지통제에 미치는 경로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만성적 학업적 지연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실패공포를 다루는 개입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회피목표를 낮추 어가되 부모의 성취압력과 심리적 통제를 고려하는 개입 및 부족한 인지적 의지통제를 증진시키는 개 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실패공포, 회피목표, 인지적 의지통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성취압력, 학업적 지연행동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sungmoon@chungbuk.ac.kr

I. 서론

지연행동은 과제의 착수와 완성을 불필요하게 미루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연행동이 학업적 영역에서 나타날 때 이를 학업적 지연행동이라 한다(Ferrari, 2001). 지연행동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관찰되는데 대학생의 70-95%가 학업적 지연행동을 경험하고(Steel, 2007), 만성적이고 심각한 지연행동을 하는 대학생만도 20-30%에 이른다(Ferrari, Johnson, and McCown, 1995; McCown and Johnson, 1991; Solomon and Rothblum, 1984). 일반성인의 경우도 20%정도가 일상적 과제에 대해 만성적인 지연행동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Hammer and Ferrari, 2002).

이와 같이 지연행동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한 현상이기에 과학적 연구에 대한 신임을 얻기에는 불충분한 주제로 여겨져서인지(Ferrari et al., 1995), 1980년대 전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특히 2000년 이후) 상당한 정도로 관련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연행동과 관련하여 2000-2007년 동안 출판된 논문은 117편으로 이전 7년간 출판된 38편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Klassen, Krawchuk, and Rajani, in press). 이러한 연구관심 증가의 일부는 그간의 연구에서 밝혀진 지연행동이 유발하는 광범위한 부정적 결과들로부터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 지연행동은 다양한 부정적 결과들과 관련됨을 보여주었는데, 지연행동을 자주하는 사람들은 내적으로는 비합리성, 후회, 절망, 우울, 불안, 자기비난에 시달리고 죄의식 및 수치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자존감과 자기효능감도 낮았다. 외적으로는 학업수행에 지장을 주고, 직업상 기회를 상실하게 되거나, 대인관계 및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ewitte and Schouwenburg, 2002; Ferrari et al., 1995; Howell, Watson, Powell, and Buro, 2006; Schraw, Wadkins, and Olafson, 2007).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 결과 및 관련 변인에 대한 증가하는 연구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연행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아 충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Klassen et al., 2007) 지연행동의 원인을 규명하는 보다 많은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간의 지연행동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동기적 변인이 주로 주목받아 왔는데, 실패공포, 완벽주의, 내외적 동기, 감각추구, 충동성, 비경쟁성, 지배성 등이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Eerde, 2003; Ferrari, 2004; Ferrari et al., 1995). 이들 중 실패의 혐오적 결과에 대한 신념 및 정서를 의미하는 실패공포는 연구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변인으로, 부모의 과도한 성취기대수준과 처벌적 양육태도, 성취에 대한 인색한 인정, 모의 애정철회적 태도, 너무 이른 독립요구 등 혐오적인 아동기 경험을 유발하는 역기능적인 가족구조와 부모-자녀관계에서 유래하는 초기 발달적 동기변인으로 간주된다(Elliot and Thrash, 2005; Sarason et al., 1960; Schmalt, 1982; Teevan and McGhee, 1972; Thrash and Elliot, 1999). 이 실패공포는 지연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 동기변인으로 가정되고 있는데, Solomon과 Rothblum(1984)에서 13개의 지연행동 이유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얻어진 실패공포요인은 지연행동 전체변량의 49.4%를 설명하였다. 이후 호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Beswick, Rothblum과 Mann(1988) 및 화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Schouwenburg(1992a)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얻음으로써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의 강력한 동기가 됨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Onwuegbuzie(2000, 2004)도 실패공포를 지연행동의 주요한 이유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실패공포척도를 사용한 대학생의 지연행동과 실패공포 간 국내외 상관 및 회귀분석 연구들에서 두 변인간의 상관계수는 .14 ~ .30, 회귀계수는 .16 ~ .17로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고(김현정, 2003; 임성문, 2007; Schouwenburg, 1992b) 지연행동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지연행동에 대한 실패공포의 효과크기는 .18로 그다지 크지 않았다(Eerde, 2003). 이는 지연행동에 대한 대중적인 책을 펴낸 Ellis와 Knaus(1977), Burka와 Yuen(1983), 많은 임상가들(Beswick et al., 1988; Schouwenburg, 1992a; Solomon and Rothblum, 1984) 및 전술한 Solomon과 Rothblum(1984) 등이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오랫동안 언급해왔던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두 가지의 추론이 가능하다. 지연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 실패공포가 특정사람에게만 매우 강력한 것이거나(Schouwenburg, 1992b; Solomon and Rothblum, 1984), 실패공포와 지연행동을 매개하는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임성문, 2007; Rothblum, 1990).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매개변인을 탐색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이론 중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자기조절 관점에 따르면, 동기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목표와 의지가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관점에 기초하여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

의 관계에서 목표에 해당하는 회피목표가 1차적으로, 의지에 해당하는 인지적 의지통제가 2차적으로 매개하는 경로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녀의 심리적 변인뿐만 아니라 부모변인을 함께 고려하는 모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실패공포가 학업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변인으로 부모의 성취압력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조절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회피목표, 인지적 의지통제의 매개역할

자기조절 관점에 의하면 동기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기는 목표나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은 정해진 목표나 의도에 따라 노력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동적인 결과가 도출된다(권성연, 2008; 서은희·박승호, 2007; Baumeister and Vohs, 2004; Carver and Scheier, 2006). 이 때 자기조절이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자신의 진행 과정을 감찰하는 것을 의미한다(Carver and Scheier, 2006). 이 관점의 연구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기뿐만 아니라 의지(volition)의 역할을 강조한다. Kuhl(1981)에 의하면 동기적 과정은 단지 행동을 결정하도록 이끄는 역할만 하고, 의지는 수행하기로 결정한 현재의 목표나 의도들을 계속 집행하도록 돕는다. 자기조절 관점에 의거할 때, 아래에 기술할 선행연구들을 통해 회피차원의 성취목표(Elliot and Church, 1997)인 숙달회피목표와 수행회피목표(이하 이 두 목표를 묶어 ‘회피목표’로 지칭한다.), 그리고 의지통제(Baumeister and Vohs, 2004)의 ‘인지적 의지통제’가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을 매개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성취목표란 성취상황에서 각 개인이 상이하게 접근하고, 개입하고, 반응하도록 하는 신념, 귀인, 정의의 통합적 양상으로(Ames, 1992; Elliot and Church, 1997), 목표지향성(숙달-수행)과 목표가치(접근-회피)에 따라 숙달접근(mastery-approach), 숙달회피(mastery-avoidance), 수행접근(performance-approach), 수행회피(performance-avoidance)의 네 가지 하위유형이 있다. 회피목표에 해당하는 두 유형 중 숙달회피는 ‘자신의 유능함의 발전을 위한 학습과제의 이해와 이를 통한 내적성장의 추구에 소극적인 경향성’으로, 수행회피는 ‘타인

과 비교하여 유능함을 드러내기 위한 성적 및 점수의 획득과 이를 통한 긍정적 평가의 추구에 소극적인 경향성'으로 정의된다(박병기 · 이종욱, 2005; Elliot and McGregor, 1999, 2001).

성취목표의 위계적 모델을 제안한 Elliot과 Church(1997)는 동기적 요인(예를 들어, 실패공포 등)이 성취목표 채택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성취목표가 최종적으로 성취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른 일련의 연구에서, 실패공포는 숙달회피, 수행회피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숙달목표(숙달 목표지향성을 접근과 회피로 구분하기 이전)와 지연행동은 부적 상관, 수행회피와 지연행동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나아가 실패공포는 수행회피 목표를 매개로 하여 학업적 지연행동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인 과제 지속성을 예측하였고, 나아가 과제의 즐기, 내적동기, 대학성적을 예측함이 밝혀졌다(Conroy and Elliot, 2004; Elliot and Church, 1997; Elliot and McGregor, 1999, 2001; Scher and Osterman, 2002). 반면, 수행접근과 실패공포 및 지연행동 간의 관계는 연구마다 일관적이지 않았다(Elliot and Church, 1997; Scher and Osterman, 2002; Wolters, 2004).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수행회피는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숙달목표지향이든 수행목표지향이든 회피목표는 과업에 대한 소극적 지향을 의미하므로 숙달회피 역시 매개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피차원의 성취목표인 숙달회피와 수행회피를 묶은 회피목표가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을 매개할 것이라 추측된다.

한편, 근래에 의지통제가 자기조절의 관점에서 학업적 지연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서은희 · 박승호, 2007; Baumeister and Vohs, 2004). 의지통제는 하고자하는 하나의 결정 사항을 실제 행위로 집행하고 다른 대안적 행위나 정보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여 수행하기로 결정한 현재의 목표나 의도들을 계속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Kuhl, 1981). 서은희와 박승호(2007)가 의지통제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의지통제 점수가 대학생의 학업적 지연행동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나아가 의지통제의 하위요인에는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환경적 의지통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지적 의지통제 요인만이 학업적 지연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인지적 의지통제란 목표와 관련된 행동에 주의를 집중하고, 목표완수를 촉진하는 양상들에 선택적으로 사고하며, 결정을 효과적으로 내리는 사고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기조절학습을 학습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으로 가정하고 성취목표와 자기조절학습간의 관계를 검토

한 양명희와 오종철(2006)에서 회피차원의 성취목표는 인지적 의지통제와 유사한 개념인 인지전략과 부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인지적 의지통제가 학업적 지연행동의 원인적 변인이라기보다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서은희와 박승호(2007)의 제안에 따라 ‘인지적 의지통제’가 회피목표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회피목표가 1차 매개변인이고 인지적 의지통제가 2차 매개변인인 경로모형을 상정하였다.

2. 회피목표와 인지적 의지통제의 관계에서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조절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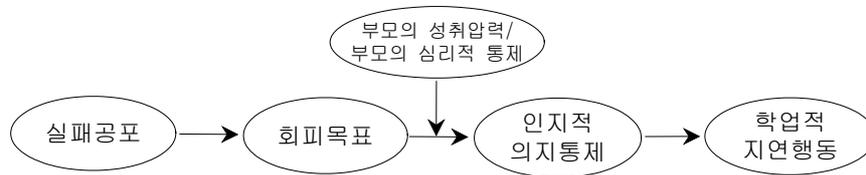
부모의 성취압력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성취압력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하나는 부모의 성취압력을 ‘학업성취를 목적으로 기대수준을 높게 책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활동을 기대하며 능력을 평가하거나 정의적 보상을 가함으로서 학습자가 지각한 압력’으로 정의한다. 이때의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성취를 강조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의 부모의 성취압력은 시험불안, 스트레스,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 공격성과 관련되는 등 자녀의 정신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탁경문, 1992; 홍은자, 2001). 다른 하나는 부모의 성취압력을 ‘자녀의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심’으로 정의하는데, 이때의 부모의 성취압력은 양육행동이 아닌 양육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의 부모의 성취압력은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학업성취,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성취동기 등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김의철, 2000; 박영신·김의철·정갑순, 2004; 탁수연·박영신·김의철, 2007). 본 연구에서는 후자로 정의되는 부모의 성취압력을 채택하고 사용하고자 한다. 탁수연 등(2007)의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경로분석 연구에서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자기조절 학습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조절 학습효능감은 공부시간을 증가시키며, 증가된 공부시간은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자기 및 주위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조절 학습효능감이 인지적 의지통제와 같은 맥락의 개념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부모의 성취압력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모형에서 자녀의 인지적 의지통제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자녀의 회피목표와 부모

의 성취압력은 상호작용하여 인지적 의지통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녀의 회피목표 수준이 낮고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은 경우, 자녀는 부모의 성취압력을 일종의 격려 또는 감내할 수 있는 부담으로 받아들여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인지적 의지통제를 많이 함으로써 부모의 성취압력이 낮을 때의 인지적 의지통제 수준과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피목표의 수준이 높을 경우 자녀는 부모의 성취압력을 강요 또는 감내할 수 없는 부담으로 받아들여 인지적 의지통제에 대한 부모의 성취압력의 긍정적 기능이 크게 감소하리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성취압력 수준은 본 연구모형의 회피목표에서 인지적 의지통제로 가는 경로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인지적 의지통제에 대한 회피목표의 영향이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도 회피목표에서 인지적 의지통제로 가는 경로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애정철회나 죄책감 유발 등을 통해 부모-자녀 유대를 조절하려는 시도로서,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채택한 양육방식으로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이기보다 양육행동으로 볼 수 있다(김희화, 2003; Barber, 1996, 2002; Shek, 2007).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심리적 자율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다(Barber, 1996, 2002). 즉,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심리적 자율성은 낮아져 자녀의 건강한 독립 및 발달(자기-신뢰와 자신감)을 저해한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행동(학업수행, 비행, 인터넷비행 등) 및 정신건강(자존감, 절망감, 불안, 우울 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희화, 2003; 정윤주, 2004; Barber, 2002; Kim and Dembo, 2000). 또한 장경문(2007)의 연구에서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들의 자기결정성이 더 낮았고 모의 심리적 통제를 낮게 지각할수록 학업성적이 더 높았다. 따라서 회피목표 수준이 낮은 자녀의 경우 높은 수준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자발성과 자기결정성을 떨어뜨려 인지적 통제를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녀의 회피목표 수준이 높을 경우 이미 자발성과 자기결정성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에 인지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심리통제 수준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모형의 인지적 의지통제에 대한 회피목표의 영향은 회피목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추측된다.

3. 연구문제

전술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동기변인인 실패공포가 단순히 학업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의지에 해당하는 회피목표와 인지적 의지통제에 의해 매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패공포가 회피목표 즉, 숙달회피목표와 수행회피목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onroy and Elliot, 2004; Elliot and Church, 1997; Elliot and McGregor, 1999, 2001; Thrash and Elliot, 2002), 회피목표가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양명희·오종철, 2006; 한순미, 2003; Barron and Harackiewicz, 2001), 그리고 인지적 의지통제가 학업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서은희·박승호, 2007)에 기초해, 경로모형(실패공포→회피목표→인지적 의지통제→학업적 지연행동)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경로모형 중 자녀의 회피목표가 인지적 의지통제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부모의 성취압력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 모형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패공포는 회피목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회피목표는 인지적 의지통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인지적 의지통제는 학업적 지연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회피목표가 인지적 의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의 성취압력이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다섯째, 회피목표가 인지적 의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는 학업적 지연행동관련 국내외연구들이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과 달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고등학생의 학업성취가

매우 중요시되는 국내의 교육적 현실을 고려해서인데, 선행 연구들에서 학업적 지연 행동은 학업성취 및 학업수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이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다 (Jecson, Weiss, Lundquist, and Hooper, 2003; Lay and Schouwenburg, 1993; Owens, 1997).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의 학업적 지연행동을 설명하는 자녀 변인 및 부모변인이 확인된다면, 고등학생을 위한 학업적 지연행동 감소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의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에 소재한 6개 고교의 고등학생을 임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5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67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683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사례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면,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은 349명(51.1%), 여학생은 334명(48.9%)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176명(25.8%), 2학년 317명(46.4%), 3학년 190명(27.8%)이었다.

<표 1> 연구 대상자 (N=683)

구 분	학 년			전 체(%)	
	1	2	3		
성별	남	105	177	67	349(51.1)
	여	71	140	123	334(48.9)
전 체(%)	176(25.8)	317(46.4)	190(27.8)	683(100)	

2. 측정 도구

1) 실패공포 척도

본 연구에서 Conroy, Willow와 Metzler(2002)가 실패의 혐오적 결과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25문항 5점 리커트식으로 구성된 PFAI-R(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Revised)을 임성문(2005)이 번역한 것을 고등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5개의 일차요인과 이 일차요인들이 실패공포라는 단일 이차(상위)요인으로 수렴되는 위계적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다. 5개의 일차요인은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자신이 평가 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이다. Conroy 등(2002)의 연구에서 하위 요인들의 Cronbach α 는 .74~.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패공포 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25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4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54.8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요인은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2요인은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3요인은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4요인은 '자신이 평가 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네 개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Cronbach α 는 각각 .87, .81, .77, .69이었고 전체 문항의 Cronbach α 는 .91이었다.

2) 회피목표 척도

본 연구에서 박병기와 이종욱(2005)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성취목표지향성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은 숙달접근목표지향성, 숙달회피목표지향성, 수행접근목표지향성,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의 네 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 척도는 26문항이며 '확실히 아니다'(1)에서 '확실히 그렇다'(6)까지 6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목표에 해당하는 숙달회피목표지향성과 수행회피목표지향성 점수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박병기와 이종욱(2005)의 연구에서 숙달회

피목표지향성과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의 Cronbach α 는 .83, .88로 보고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71, .80으로 나타났다.

3) 인지적 의지통제 척도

본 연구에서 Kuhl(1985)과 Como(1989)가 분류한 의지통제전략에 기초하여 최진승, 박경옥과 박금옥(1998)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의지통제전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의지통제, 동기적 의지통제, 정서적 의지통제, 환경적 의지통제의 4개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의지통제에는 주의집중 통제, 부호화 통제, 정보처리 통제가 포함되며, 정서통제는 걱정이나 불안같이 행동을 방해하거나 제어하는 정서 상태를 바꾸거나 억누름으로써 배우려는 의도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기통제는 의도에 관한 동기적 기초를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통제는 개인의 환경적 측면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지통제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은희와 박승호(2007)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인지적 의지통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지적 의지통제 문항의 Cronbach α 는 .85였다.

4) 학업적 지연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 Aitken(1982)의 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를 박재우(1998)가 번안한 것을 고등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 중 10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점수는 19점에서부터 95점 사이에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생활 전반에 걸쳐 지연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Cronbach α 는 .80이었다.

5) 부모의 성취압력 척도

본 연구에서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신(1989)이 제

작한 성취압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개 문항을 포함하며(문항의 예, “부모님은 내가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신다.”, “부모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 “부모님은 내가 좋은 친구 사귀기 바라신다.” 등)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 α 는 .85였다.

6)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본 연구에서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Kim(1999)이 사용한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CRPBI)의 심리적 통제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번역은 연구자가 초벌 번역한 것을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1인의 심리학자가 수정한 후 1인의 상담심리학자의 자문을 거쳐 완성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사고과정, 자기표현, 정서와 같은 심리적, 정서적인 발달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Barber(1996)의 방식을 따라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각각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점수는 부와 모 각각의 심리적 통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본 척도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들은 죄책감 유도(문항의 예, “부모님은 내가 정말로 부모님을 생각했다라면 부모님을 걱정시킬 만한 일은 안했을 거라고 말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원칙대로만 하신다.” 등), 애정 철회(문항의 예, “부모님은 내가 실망시켰을 때 나를 안 보려고 하신다.”, “내가 부모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다시 기쁘게 해드릴 때까지 내게 말을 안하신다.” 등), 변화에 대한 과도한 압력(문항의 예, “부모님은 언제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통제하고 싶어 하신다.” 등)를 반영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문항의 Cronbach α 는 모두 .85였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2007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되었다. 우선 각 고등학교에서 설문지에 응할 학급의 담당교사에게 사전에 협조를 요청한 후 학생들의 동의하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부 학교는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조사 실시지침을 설명받은 담당교사가 실시하였다. 조사 설문지는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척도들의 배열 순서를 달리한 여섯 개의 세트로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1.5를 이용하여 각 척도의 Cronbach α 를 산출하였고, 빈도분석과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회피목표, 인지적 의지통제의 매개효과 검증은 AMOS 5.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이어서 회피목표와 인지적 의지통제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성취압력 및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모의 성취압력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평균 이상/이하 집단으로 나누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고 두 모형에서의 경로계수 차이를 검증하였다(김계수, 2006). 추가적으로 회피목표와 부모의 성취압력이 인지적 의지통제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전체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실패공포, 회피목표, 인지적 의지통제, 학업적 지연행동,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실패공포는 회피목표($r = .331, p < .001$), 학업적 지연행동($r = .226, p < .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r = .274, p < .001$)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인지적 의지통제, 부모의 성취압력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회피목표는 인지적 의지통제($r = -.230, p < .001$), 부모의 성취압력($r = -.084, p < .01$)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학업적 지연행동($r = .152, p < .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r = .186, p < .001$)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인지적 의지통제는 학업적 지연행동($r = -.394, p < .00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부모의 성취압력($r = .235, p < .001$)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학업적 지연행동은 부모의 성취압력($r = -.108, p < .001$)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부모의 심리적 통제($r = .130, p < .001$)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표 2>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5	6
1. 실패공포	1					
2. 회피목표	.331***	1				
3. 인지적 의지통제	-.050	-.230***	1			
4. 학업적 지연행동	.226***	.152***	-.394***	1		
5. 부모의 성취압력	.044	-.084**	.235***	-.108**	1	
6. 부모의 심리적 통제	.274***	.186***	-.022	.130***	.008	1
M	10.92	17.02	46.94	54.70	55.23	47.01
SD	2.42	3.91	8.40	9.25	9.04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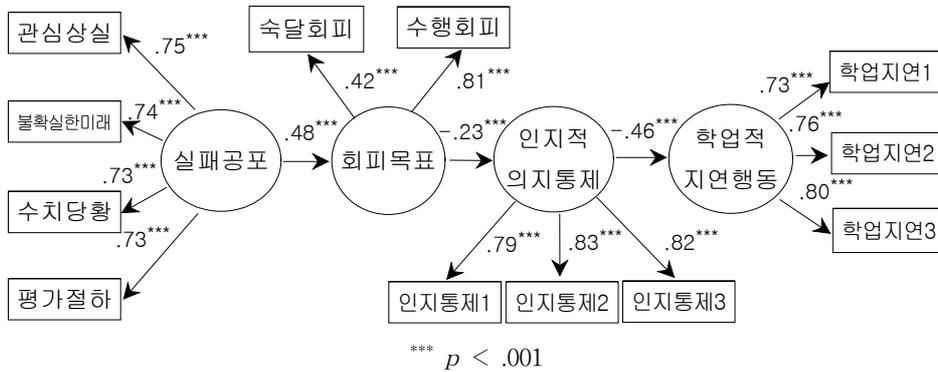
** $p < .01$, *** $p < .001$

2.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모형의 측정변인들이 이론적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시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χ^2 검증을 이용한다. 하지만 χ^2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의 사례수가 200이상인 경우 모형을 기각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χ^2 값과 함께 홍세희(2000)가 권장한 적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홍세희(2000)에 의하면, *TLI*, *CFI*가 .9이상이면 그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RMSEA*가 < .05이면 모형의 적합도는 좋다고 말할 수 있으며, < .08이면 어느 정

도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X^2(df=48, N=683)=162.525, p=.000; TLI=.946; CFI=.961; RMSEA=.059$ 로, X^2 값은 유의미하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들이 양호하므로 결과적으로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적합도는 $X^2(df=51, N=683)=199.155, p=.000; TLI=.935; CFI=.950; RMSEA=.065$ 로, X^2 값은 유의하게 산출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이 양호하므로 연구모형이 자료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는 그림 2, 경로계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연구모형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패공포는 회피목표에 정적인 영향($\beta = .483, p < .001$)을 미치고, 회피목표는 인지적 의지통제에 부적인 영향($\beta = -.226, p < .001$)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회피목표로부터 부적인 영향을 받은 인지적 의지통제는 학업적 지연행동에 부적인 영향($\beta = -.461, p < .001$)을 미치고 있다. 고등학생의 학업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모형에서의 인지적 의지통제 경로는 학업적 지연행동 전체변량의 약 21%를 설명하고 있다.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t 검증치

구조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정지수 (t-value)	p
실패공포→회피목표	.195	.483	.037	5.247	.000
회피목표→인지통제	-.355	-.226	.085	-4.172	.000
인지적 의지통제→학업적 지연행동	-.441	-.461	.046	-9.575	.000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회피목표		.234			
인지적 의지통제		.051			
학업적 지연행동		.213			

3. 부모의 성취압력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조절효과 검증

연구모형 중 회피목표에서 인지적 의지통제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부모의 성취압력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부모의 성취압력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고저 집단(평균이상 또는 평균이하)의 사례수 및 부모의 성취압력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고저 집단에 따른 인지적 의지통제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부모의 성취압력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고저집단과 그에 따른 인지적 의지통제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부모의 성취압력	고집단	361	48.66
	저집단	322	45.02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고집단	324	46.61
	저집단	359	47.24

표 4에서 보면, 부모의 성취압력이 평균이상과 평균이하인 집단에 따른 인지적 의지통제의 평균(표준편차)은 각각 48.66(8.52), 45.02(7.83)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평균이상과 평균이하인 집단에 따른 인지적 의지통제의 평균(표준편차)은 각각 46.61(8.73), 47.24(8.0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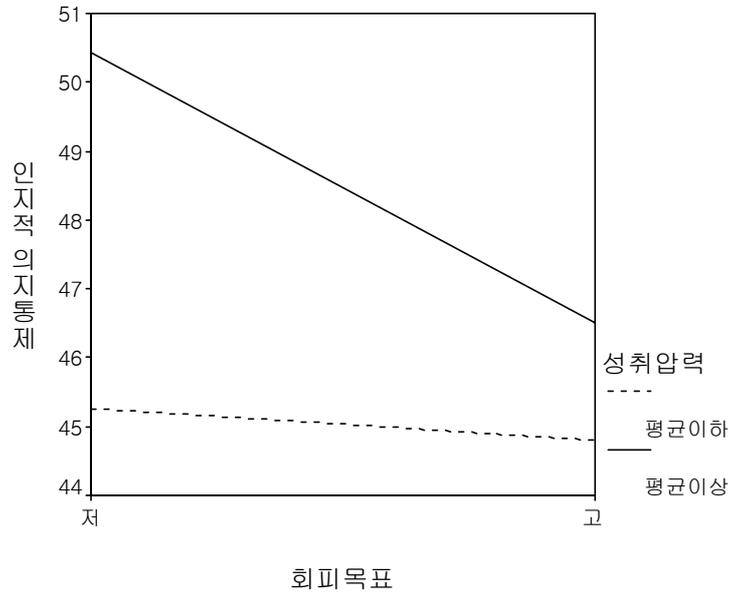
이어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부모의 성취압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성취압력 고집단의 경우 회피목표와 인지적 의지통제 간 경로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beta = -.36, p < .001$), 부모의 성취압력 저집단의 경우 회피목표와 인지적 의지통제 간 경로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beta = -.09, p > .05$). 나아가 부모의 성취압력 고집단과 저집단의 표준화 계수의 차이가 유의미한가를 검증한 결과 집단 간 차이 값이 -2.44로 -1.96보다 크게 나타나 집단간 표준화 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성취압력 고집단과 저집단은 회피목표에서 인지적 의지통제로 가는 경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부모의 성취압력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집 단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고정지수 (t-value)	고-저 집단 차이 (t-value)	
부모의 성취압력	고집단	-.52	.12	-.36	-4.31***	-2.44*
	저집단	-.12	.11	-.09	-1.12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고집단	-.19	.12	-.09	-1.57	2.22*
	저집단	-.57	.13	-.52	-4.57***	

* $p < .05$, *** $p < .001$

이원변량분석을 통하여 인지적 의지통제에 대한 자녀의 회피목표와 부모의 성취압력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 679)=7.664, p < .01$). 인지적 의지통제에 대한 자녀의 회피목표와 부모의 성취압력 간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에서 보면, 인지적 의지통제는 부모의 성취압력 점수가 평균이하인 집단보다 평균이상인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회피목표가 낮고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을 때 인지적 의지통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피목표가 증가할수록 두 집단 간 차이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림 3] 인지적 의지통제에 대한 회피목표와 부모 성취압력의 상호작용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고집단의 경우 회피목표와 인지적 의지통제 간 경로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beta = -.09, p > .05$),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저집단의 경우 회피목표와 인지적 의지통제 간 경로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 -.52, p < .001$). 나아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고집단과 저집단의 표준화 계수의 차이가 유의미한가를 검증한 결과 집단 간 차이 값이 2.22로 1.96보다 크게 나타나 집단간 표준화 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고집단과 저집단은 회피목표에서 인지적 의지통제로 가는 경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원변량분석을 통하여 인지적 의지통제에 대한 자녀의 회피목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1, 679) = 2.340, p > .05$).

IV. 논 의

본 연구는 실패공포가 고등학생의 학업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회피목표가, 이차적으로 인지적 의지통제가 매개하는지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모형 중 회피목표에서 인지적 의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의 성취압력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조절변인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차례대로 요약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모형이 관찰된 자료와 부합함으로써 타당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본 모형에서 설정한 경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패공포는 회피목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회피목표는 인지적 의지통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회피목표의 영향을 받은 인지적 의지통제는 고등학생의 학업적 지연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실패공포가 숙달회피목표와 수행회피목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Conroy and Elliot, 2004; Elliot and Church, 1997; Elliot and McGregor, 1999, 2001; Thrash and Elliot, 2002), 회피목표가 인지적 의지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양명희·오종철, 2006; 한순미, 2003; Barron and Harackiewicz, 2001), 그리고 인지적 의지통제가 학업적 지연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서은희와 박승호(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 높은 수준의 회피목표 수준을 갖게 됨으로써 학습과제의 이해와 내적성장의 추구 및 긍정적 평가의 획득에 대한 소극적 경향성이 증가하게 되고, 높아진 회피목표 수준은 과제에 집중하여 완성하도록 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인지적 의지통제 수준을 낮추며, 낮아진 인지적 의지통제는 학업적 지연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자기조절학습에서 강조하는 목표와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실패공포로 인해 만성적인 학업지연행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피목표수준을 낮추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교육적 노력으로써 양명희와 오종철(2006)은 학생의 회피목표 수준을 낮추기 위해 학교교육에서 질문을 하는 것, 실수를 하는 것이 자연적인 학습과정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학생들 스스로 모험을 감수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더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권성연(2008) 역시 교사가 학생들의 실패와 실수, 부족함에 대한 엄격한 평가보다는 결과에 상관없이 시도에 대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허용적인 수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인지적 의지통제는 학업적 지연행동의 21%를 설명하고, e-Learning과 같은 다양한 학습체제가 활성화 되면서 교사에 의해 주도되기 보다는 학생 자신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능력 및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최근의 교육적 동향(백영균 등, 2007)을 고려할 때, 학습자의 인지적 통제가 증진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패공포로 인한 학업지연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을 돕기 위해 인지적 의지통제를 구성하는 주의집중 전략, 부호화 전략, 정보처리 전략 증진을 위한 상담적 개입과 체계적인 지도가 요구된다.

둘째, 부모의 성취압력은 본 연구모형의 자녀의 회피목표가 인지적 의지통제로 가는 경로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즉 평균 이상의 부모의 성취압력 집단에서 회피목표는 인지적 의지통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나, 평균 이하의 부모의 성취압력 집단에서 그 경로계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실패공포로 인한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회피목표 수준을 낮추는 개입에서 부모의 성취압력 수준에 따른 차별적 처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을 때는 학생의 회피목표 수준을 낮춤으로써 인지적 의지통제가 높아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으나, 부모의 성취압력이 낮을 때는 회피목표 수준을 낮추더라도 인지적 의지통제가 높아지리라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회피목표와 상호작용하여 인지적 의지통제에 영향을 미쳤다. 즉, 회피목표 수준이 높을 때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든 낮든 전반적으로 인지적 의지통제는 감소하는데, 특히 학생의 회피목표 수준이 낮고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을 때 인지적 의지통제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탁수연 등(200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의 긍정적 효과가 자녀의 회피목표 수준이 낮을 때에 특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즉 자녀의 회피목표 수준이 보다 결정적인 변인으로, 자녀가 회피목표 수준이 높을 경우 부모의 성취압력을 강요 또는 감내할 수 없는 부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인지적 의지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최근 김의철과 박영신(2008)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

의 경우 부모가 성취에 대한 기대와 관심 및 성취지향적인 압력을 준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부모가 자기에 대해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러한 추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요약하면 고등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고자 인지적 의지통제 수준을 증가시키려는 상담 및 교육적 개입에서 부모의 성취압력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의 성취압력 수준이 높을 때 학생의 회피목표 수준의 감소를 위한 개입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회피목표가 인지적 의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즉, 애정철회나 죄책감 유발 등을 통해 부모-자녀 유대를 조절하려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평균 이상인 집단에서 회피목표는 인지적 의지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평균 이하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 집단에서 회피목표는 인지적 의지통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낮은 집단에서만 학생의 회피목표 수준을 낮추는 개입이 인지적 의지통제의 증가를 가져오리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김희화, 2003; 정윤주, 2004; Barber, 2002; Kim and Dembo, 2000)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현지원(2008)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목표달성을 위해 충동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인 자녀의 자기통제와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높은 수준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자기조절과정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예상케 한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학업지연행동 감소를 위해 인지적 의지통제 수준을 증가시키려면, 자녀의 회피목표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부모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와 시사점은 지금까지 국내·외의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대학생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기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활성화되어 재확인될 필요가 있다. 서구와 다르게 국내의 경우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박영신·김의철, 2003; 박영신·김의철·탁수연, 2005; 박창남·도종수, 2005), 학업적 지연행동이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Jackson, Weiss, Lundquist, and Hooper, 2003; Wesley, 1994)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지연행동 연구는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전에 수행된 단편적 연구들을 극복하고자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동기적 변인과 자기조절변인의 연계 및 부모변인을 포함하는 연구설계를 도입한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설계를 사용하였고 실제 부모가 아닌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심리적 통제 수준을 자료로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용 질문지를 사용하고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성연(2008). 2×2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 *교육공학연구*, 제24권 제1호, pp. 213-240.
- 김계수(2006).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 김현정(2003). 완벽주의, 충동성, 자기효능감, 및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 133-153.
- 박병기·이종욱(2005). 2×2 성취목표지향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제19권 제1호, pp. 327-352.
- 박영신(1989). *한국 학생이 지각한 학업에 대한 성패귀인과 학습동기화과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신·김의철(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38권 제2호, pp. 109-146.
- 박영신·김의철(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1호, pp. 139-165.
- 박영신·김의철(2008).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 (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4권 제1호, pp. 63-109.
- 박영신·김의철·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중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 제3호, pp. 37-59.
- 박영신·김의철·탁수연(2005). 청소년과 부모의 실패와 미래성취 의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1권 제2호, pp. 73-108.
- 박재우(1998). *과제의 자아 위협도와 완벽주의가 과제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남·도종수(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제22권, pp. 281-303.

- 백영균 · 박주성 · 한승록 · 김정겸 · 최명숙 · 변호승 · 박정환 · 강신천(2006). *유비쿼터스 시대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 서은희 · 박승호(2007). 의지통제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21권 제2호, pp. 423-436.
- 양명희 · 오종철(2006). 2×2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과의 관련성 검토. *교육심리연구*, 제20권 제3호, pp. 745-764.
- 임성문(2005). 초기 부적응도식과 만성적 지연행동간의 관계: 매개변인과 경로모형의 탐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성문(2007).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와 대학생의 만성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pp. 323-356.
- 장경문(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내외향적 성격특성에 따른 자기결정성 및 학업성적의 차이. *초등교육연구*, 제20권 제1호, pp. 165-179.
- 정윤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제25권 제6호, pp. 205-223.
- 최진승 · 박경옥 · 박금옥(1998). 의지 통제 방략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 제26권, pp. 63-85.
- 탁경문(1992). 지각된 성취압력이 성취동기와 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수연 · 박영신 · 김의철(2007).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 분석: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제16권 제1호, pp. 143-154.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의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 161-177.
- Aitken, M. (1982). *A personality profile of the college student procrastin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Kansas, USA.
-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4, pp. 261-271.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Vol. 67, pp. 3296-3319.

- Barber, B. K. (Ed.). (2002).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umeister, R. F. and Vohs, K. D. (2004).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Beswick, G., Rothblum, E. D., and Mann, L. (1988). Psychological antecedents of student procrastination. *Australian Psychologist, Vol. 23*, pp. 207-217.
- Burka, J. B. and Yuen, L. M. (1983). *Procrastination: Why you do it, what to do about it*. Reading, MA: Addison-Wesley.
- Carver, C. S. and Scheier, M. F. (2006). *성격심리학[Perspectives on Personality]*. (김교현, 심미영, 원두리 역). 서울: 학지사.
- Conroy, D. E. and Elliot, A. J. (2004). Fear of failure and achievement goals in sport: Addressing the issue of the chicken and egg. *Anxiety, Stress, and Coping, Vol. 17*, pp. 271-285.
- Conroy, D. E., Willow, J. P., and Metzler, J. N. (2002).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of fear of failure: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Vol. 14*, pp. 76-90.
- Corno, L. (1989). Self-regulated learning: A volitional analysis. In B. J. Zimmerman and D. H. Schunk(Ed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 111-141). New York: Springer.
- Dewitte, S. and Schouwenburg, H. C. (2002). Procrastination, temptations, and incentives: The struggl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in procrastinators and the punctual.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 16*, pp. 469-489.
- Eerde, W. V. (2003). A meta-analytically derived nomological network of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5*, pp. 1401-1418.
- Elliot, A. J. and Church, M. A.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2*, pp. 218-232.
- Ellis, A. and Knaus, W. J. (1977). *Overcoming procrastination*. New York: Institute for Rational Living.

- Elliot, A. J. and McGregor, H. A. (1999). Test anxiety and the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6, pp. 628-644.
- Elliot, A. J. and McGregor, H. A. (2001). A 2×2 achievement goal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0, pp. 501-517.
- Elliot, A. J. and Thrash, T. M. (200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ear of fail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0, pp. 957-971.
- Ferrari, J. R. (2004). Trait procrastination in academic settings: An overview of students who engage in task delays. In H. C. Schouwenburg, C. Lay, T. A. Pychyl, and J. R. Ferrari(Eds), *Counseling the procrastinator in academic settings*(pp. 19-28). Washington, DC: APA Publishing.
- Ferrari, J. R. (2001). Procrastination as self-regulation failure of performance: Effects of cognitive load, self-awareness, and time limits on “working best under pressur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 15, pp. 391-406.
- Ferrari, J. R., Johnson, J. L., and McCown, W. G. (1995).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New York: Plenum.
- Flett, G. L., Blankstein, K. R., and Martin, T. R.(1995). Procrastination, negative self-evaluation, and stress in depression and anxiety: A review and preliminary model. In J. R. Ferrari, J. L. Johnson, and W. G. McCown(Eds.),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pp. 137-167). New York: Plenum Press.
- Hammer, C. A. and Ferrari, J. R. (2002). Differential incidence of procrastination between blue-and white-collar workers. *Current Psychology: Developmental, Learning, Personality, Social*, Vol. 21, pp. 333-338.
- Howell, A. J., Watson, D. C., Powell, R. A., and Buro, K. (2006).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pattern and correlates of behavioral postpone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0, pp. 1519-1530.
- Jackson, T., Weiss, K. E., Lundquist, J. J., and Hooper, D. (2003). The impact of hope, procrastination, and social activity on academic performance on

- midwestern college students. *Education, Vol. 124*, pp. 310-320.
- Kim, C. W. (1999). *Social-cognitive factors influencing success on college entrance exams in South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alifornia, USA.
- Klassen, R. M., Krawchuk, L. L., and Rajani, S. (in press). Academic procrastination of undergraduates: Low self-efficacy to self-regulate predicts higher levels of procrastination. *Contemporary Education Psychology*.
- Kuhl, J. (1981). Motivational and functional helplessness: The moderating effect of state versus acti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0*, pp. 155-170.
- Kuhl, J. (1985). Volitional mediators of cognition-behavior consistency: Self-regulatory processes and action versus state orientation. In J. Kuhl and J. Beckmann(Eds.),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pp. 101-128). Berlin, Heidelberg, NY, Tokyo: Springer-Verlag.
- Lay, C. H. and Schouwenburg, H. C. (1993). Trait procrastination, time management, and academic behavior.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8*, pp. 647-662.
- McCown, W. and Johnson, J. (1991). Personality and chronic procrastination by students during an academic examination peri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2*, pp. 662-667.
- Onwuegbuzie, A. J. (2000).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perfectionistic tendencies among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15*, pp. 102-109.
- Onwuegbuzie, A. J. (2004).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statistics anxiety.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Vol. 29*, pp. 3-19.
- Owens, A. M. (1997). Procrastination in high school achievement.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12*, pp. 869-887.
- Rothblum, E. D. (1990). Fear of failure: The psychodynamic, need achievement, fear of success, and procrastination models. In H. Leitenberg(Ed.),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pp. 497-537). New York: Plenum.
- Scher, S. J. and Osterman, N. M. (2002). Procrastination, conscientiousness, anxiety,

- and goals: exploring the measurement and correlates of procrastination among school-aged children.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 39, pp. 385-398.
- Schouwenburg, H. C. (1992a).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procrastination and fear of failure in university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22nd Congress of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Behavior Therapy, Coimbra, Portugal.
- Schouwenburg, H. C. (1992b). Procrastinators and fear of failure : An exploration of reasons for procrastin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 6, pp. 225-236.
- Schraw, G., Wadkins, T., and Olafson, L. (2007). Doing the things we do: A grounded theory of procrastin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9, pp. 12-25.
- Shek, D. T. L. (2007). A longitudinal study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63, pp. 1-22.
- Solomon, L. J. and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pp. 503-509.
-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3, pp. 65-94.
- Teevan, R. C. and McGhee, G. (1972). Childhood development of fear of failure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1, pp. 345-348.
- Thrash, T. M. and Elliot, A. J. (2002). Implicit and self-attributed achievement motives: Concordance and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Vol. 70, pp. 729-755.
- Thrash, T. M. and Elliot, A. J. (1999).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the fear of failure motiv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 Wesley, L. C. (1994). Effects of ability, high school achievement, and procrastinatory behavior on college performanc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54, pp. 404-408.
- Wolters, C. A. (2004). Advancing achievement goal theory: using goal structures and goal orientations to predict students' motivation, cogni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6, pp. 236-250.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Failure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Avoidance Goals and Cognitive Volition Control,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n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Choo, Sang-Yup* · Lim, Sung-M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a pass model in which fear of failure affects avoidance goals. Avoidance goals, in turn seem to affect the orientation of cognitive volition control, and this has an effect on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procrastination. Furthermore, whethe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chievement pressure have any moderating effects in the pathway from the avoidance goal to cognitive volition control on our pass model were also investigated. Data were collected from 683 students in six high schools. For the analyses of the mediating effects and moderating effec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pass model was identified to fit the observed data. This means that avoidance goals increased as fear of failure rises, the increased levels of avoidance goals decreased cognitive volition control, and the decreased levels of cognitive volition control increase the level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Secon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avoidance goals and cognitive volition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sungmoon@chungbuk.ac.kr

control on our model.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terventions which deal with avoidance goals and cognitive volition control are needed, in order to reduce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procrastination caused by the fear of failure. These imply, additionally, that when counselors try to reduce the high levels of avoidance goals, they should consider the levels of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nd psychological control at work as influences.

Key Words : fear of failure, avoidance goal, cognitive volition control,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cademic procrastination

투고일 : 9월 21일, 심사일 : 10월 20일, 심사완료일 : 11월 7일